

지역 매아리

정읍 씨름 전지 훈련장으로 각광

정읍이 씨름 전지 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주대(12명)가 지난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한림대(13명)가 8일부터 14일까지, 인하대(12명)가 15일부터 21일까지 훈련을 실시했거나 실시 예정이다. 또 22일부터는 구미시청 씨름단이 전지훈련을 가질 계획이다.

이처럼 전국 각지의 씨름단이 전지훈련을 위해 정읍을 연이어 찾는 것은 지난해 씨름 훈련장이 준공돼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평동 체육공원 내에 있는 씨름 훈련장은 505m이다. 헬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날씨와 상관없이 훈련할 수 있는 시계절 전지훈련장이다.

또한 2016년 창단된 정읍시청 단풍마린 씨름단이 2년여 만에 국내 18개 씨름단 중 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명성이 높고 있는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지훈련 중인 전주대와 한림대 선수들과 정읍시청 씨름선수단은 제철 작업에도 적극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선수들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정읍에서 열리고 있는 중등부 축구 스토브리그가 폭설로 대회 운영에 차질을 빚자 10일과 12일 축구장 제설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안전신문고' 이용 홍보

고창군이 생활 속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안전한 고창 만들기를 위해 '안전신문고'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소,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행정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접수 및 처리하는 안전신고 제도다.

주요 신고대상은 도로와 안내표지판 파손, 신호등 고장 등 교통위험, 가로등 고장 등 공공시설 위험 불법현수막, 통행로 돌출물 및 장애요소 제거 등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안전신문고 이용방법은 위험요소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발생지역 입력,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처리결과 적정 여부 대해서는 고창군 안전총괄팀이 모니터링을 실시해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내용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생활 속 구석구석 안전한 고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화합 · 열린 소통 부안 만들기 앞장

김종규 군수, 오복공감 이야기 마당 공감토크쇼 통해 주민 참여 군정 펼쳐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을 펼쳐주고 김종규군수가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직접 챙기는 오복공감 이야기 마당 공감토크쇼가 역동적인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행정이 주민 곁에 다가가고 있다.

주민들의 여론을 직접 찾아 나선 김 군수는 항상 낮은 자세와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부안읍을 시작으로 읍·면을 방문 진솔한 여론을 수렴해 군정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주민과의 폭넓은 접촉과 대화를 통해 큰 화합, 열린 소통 부안 만들기에 주민 모두가 활짝 열려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을 펼치고 있다.

하루에 2개면씩 오는 28일 위도면을 마지막으로 임기초부터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슬로건 삼아 군정을 추진해온 김군수는 민선 6기의 역점 사업을 위한 부안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펼쳐왔다.

더욱이 김 군수는 "이제는 단순한 홍보방법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제가 직접 '세일즈군수'를 자처해 발품을 팔면서 홍보할 계획이고 메스컴과 SNS, 부안을 찾는 관광



김종규 부안군수는 민선 6기의 역점 사업을 위한 부안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펼쳐왔다.

객들의 구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부안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안을 찾아온 고객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깨끗한 가계에 들어가면 그 가계의 제품이 다 좋아 보이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제품을 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부안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정성을 중심으로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라며 "민선 6기 임기 내에 '요즘은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106억원 투입 도시계획도로 19개 노선 개설

정읍시, 계속사업 5개 · 소방도로 13개 노선 · 영화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등 추진

정읍시가 올해 모두 106억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 19개 노선을 개설한다.

시에 따르면 작은말고개 도로와 죽림터널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서부산업도로(상동주유소~상동회관), 상평선 연결도로 등 계속사업 5개 노선과 소방도로 13개 노선 (가칭)영화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등 총 19개 노선, 연장 4.26k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

이중 시 남부의 중심축 도로인 서부산업도로 구간 개설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는 55억원을 투입해 서부산업도로 주요 구간인 중앙로 상동주유소에서 충정로 상동회관까지 연장 364m, 폭 35m(4차선)의 도로를 개설

할 계획이다.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0억원을 들여 편입토지 1628㎡를 매입했고,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마쳤다.

시는 빠른 시일 내 잔여 편입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고 오는 3월 공사를 발주, 12월 준공 개통할 계획이다. 시는 "서부산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1989. 6. 7)이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3월 개통 예정인 작은말고개 도로(영화이파트~상동회관)와 이미 개설된 서부산업도로 구간인 천

변우회도로~상동주유소를 연결,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 구간(상동주유소~상동회관)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었다.

서부산업도로는 구룡동 영화이파트 앞에서부터 호남고등학교를 경유해 상평동 종합운동장과 농산물도매시장을 거쳐 하북동 제2산업단지 이어지는 총연장 9.490m의 시가지 외곽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시가지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교통 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부안의 신선한 빵잎 먹고자란 누에 이용 '그라주' 전국 판매망 확대

부안 청정 누에터운특구에서 신선한 빵잎을 먹고 자란 누에로 달근 그라주가 애주가들로부터 인기를 끌며 팔려나가고 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누에를 이용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그라주'가 전국으로 유통망을 확대해 대대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라주는 부안 청정 누에터운특구에서 신선한 빵잎을 먹고 자란 누에를 이용해 제조한 증류주로 그동안 오더를 이용한 빵주, 빵와인, 빵 맥걸리 등은 생산·판매되고 있으나 가능성이 입증된 누에를 이용한 주류는 전국 최초로 개발돼 부안군의 대표 주류 상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개발과정과 품평회를 통해 17도, 25



도, 36.5도 등 3가지 도수의 그라주가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그라주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시작으로 현재 명동점과 분당점, 죽전점 등에 입점해 있으며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평촌점에도 입점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주류 판매 음식점에도 공급·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전국 판매망을 확대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 k-water,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협약 체결

고창군과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 정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노후 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박우정 고창군수, k-water 금·영·삼남역 강병재 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 정비) 위수탁 협약' 사업은 고창군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가뭄대응은 물론 유수율 제고를 통한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 개선을 위해

박우정 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올해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39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와 복구, 수도관 정비,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된다.

고창군과 k-water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2019년까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결과 대상구역 등을 결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유수율 85%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서, 비위예방 실천 실무진 토크 개최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은 본 서 실무진인 계장 및 팀장이 한자리에 모여 비위 예방을 위한 집중 토크의 시간을 가졌다.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찰관의 의무위반 행위를 언론 등을 통해 접하고 이를 공유 경각심을 갖고 사전 예방하여 우리 서에서는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부청문관 박원성 경위는 "음주운전과 성 비위 관련 건전한 회식문화 정

착을 위해 본인 스스로의 절제와 관리의 물론 동료간의 존중하고 아끼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 성 비위 및 갑질 등 각종 비위행위를 예방하자"고 전하였다.

김성재 서장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의무위반 행위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직원 스스로는 물론 곁에 있는 동료의 관심과 격려도 필요함을 알고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뽕주 GIFT SET'. It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